

주일 전례 봉사자			
구분	7월 4일(연중 제14주일)	7월11일(연중 제15주일)	
새벽 미사	해설	배점미 안나	손 요안나
	1독서	박동주 F.로마나	진정환 요한
	2독서	방경자 레지나	김영애 요안나
교중 미사	해설	김광순 카타리나	이정애 실비아
	1독서	김승원 마오로	신성철 안토니오
	2독서	황숙자 베로니카	유경자 테레사
화 답 송	 <p>저희는 주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자비만을 바라나이다</p>		

평일 전례 봉사자					
날짜	7월 5일(월)	7월 6일(화)	7월 7일(수)	7월 8일(목)	7월 9일(금)
해설	변은숙 M.막달레나	임순자 안나	이정애 실비아	배점미 안나	권미라 리오바
독서	김진화 레지나	순교자의 모후	애덕의 모후	사도들의 모후	사랑하올 어머니

7월 4일 (연중 제14주일)	미사 발열 체크(특전17:30부터)	안정준(바오로), 조양규(미카엘)
	미사 발열 체크(교중09:00부터)	시설관리분과
	미사안내	구역분과
	성당주변청소 및 주차안내	성실하신 모후 Pr.
	차량봉사(좌곤리)	박종탁(알폰소)
	차량봉사(휴먼시아)	전: 박안홍(시몬) 후: 신강순(도미니코)
	차량봉사(유등)	최영주(안젤로)
7월11일 (연중 제15주일)	미사 발열 체크(특전17:30부터)	오일규(루카), 김정철(바오로)
	미사 발열 체크(교중09:00부터)	사회복지분과
	미사안내	시설관리분과
	성당주변청소 및 주차안내	성실하신 모후 Pr.
	차량봉사(좌곤리)	최효찬(프란치스코)
	차량봉사(휴먼시아)	전: 주양원(요셉) 후: 백죽엽(예로니모)
	차량봉사(유등)	장도영(마태오)

사랑터

제1741호

연중 제 14주일

2021년 7월 4일

주소: 김해시 진영읍 진영산북로110 / 홈페이지: <http://jy.cathms.kr/>

전화: 345-7086(사제관)/ 343-2446(수녀원)/ 343-2018(사무실)/ 010-8551-2906(연령회장)

미사안내: (월) 6:30/ (화,목) 19:30/ (수,금) 10:00/ (토) 16시어린이, 18:30특전 / (주일) 6:30, 10:30

- 사목협의회 7/4일 교중미사 후
- 본당에 교구청 신축기금 납부한 세대는 마산교구보에 이름과 세례명이 기재될 예정입니다. 이름과 세례명이 교구보에 기재되지 않음은 원치 않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 대산공소 미사 7/11(주일)14시
-동행: 자비로운 모후 Pr.(성당13:30분 출발)

▪ 교중미사 참례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이 구역별로 분산해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연중 제15주일 (7/10~11일)	특전(18:30)	4구역, 6구역	연중 제16주일 (7/17~18일)	특전(18:30)	2구역, 5구역
	새벽(06:30)	3구역		새벽(06:30)	4구역, 6구역
	교중(10:30)	1구역, 기타 2구역, 5구역		교중(10:30)	3구역 1구역, 기타

-사정이 있는 분들은 원하시는 미사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 교구청 신축모금을 위한 봉헌서 제출
-일시: 목표달성까지 신축기금 봉헌서를 작성해서 제출
-납부: 교무금 12개월분 이상 약정하여 22년말까지 봉헌
-개인이나 단체의 특별 기부금도 환영합니다.

교구청신축기금 본당계좌
농협843-01-070968
(재)마산교구천주교회 진영성당

교구청신축모금 : 6월26일(토)-7월 2일(금)	
안중분 글라라(완), 백기상 가스발(1), 조명분 막달레나(1) 박정숙 카타리나(4), 김재열 모니카, 김양금 헬레나 윤정두 마태오, 진일용 루치아(완), 김중곤 비오, 조정순 마리아, 임순자 안나(2), 황연옥 엘리사벳(완), 서시분 제노베파(완), 최준자 발렌티나(1), 장수근 읍(완), 김분달 카타리나(완), 장방공소, 구지현 유스티나(1-2), 김선미 베로니카(1), 김광자 세실리아(1-6), 이현호 요한(3) 박월순 마리아(완), 서원미 엘리사벳(5) 이용범 프란치스코(1-5), 권미라 리오바(완)	*본당 1년 교무금 총액 204,000,000원(343세대) *현재 봉헌서 제출 총액 88,042,000원(121세대)
이번 주 봉헌액: 7,901,936원 (누계:41,739,936원)	

교 무 금 : 6월26일(토)-7월 2일(금)					
성 명(세례명)	납부월	성 명(세례명)	납부월	성 명(세례명)	납부월
이세원(다두)	6	신미자(헬레나)	7-9	차일순(마리아)	6
박준규(아우구스티노)	6	허만학(요셉)	7	정상중(벤자민)	6
임순자(안나)	7	윤무출(베드로)	6	오종두(베드로)	6-7
이말순(마르타)	6-7	김재열(모니카)	9	김양금(헬레나)	7
윤정두(마태오)	7	진일용(루치아)	7	박순자(루치아)	5-6
이삼순(올리아)	7	김재실(에바리스또)	6	김가영(아나다시아)	5-6
김미영(정혜엘리사벳)	3-8	정이숙(모니카)	6	조운제(요셉)	6
김경선(다리아)	6	최은희(바울라)	6	백죽엽(예로니모)	6
윤주국(알로이시오)	6	박두리(아네스)	6	박순연(마리아)	6
김선미(베로니카)	7	김광자(세실리아)	6-7	이현호(요한)	6
노현식(프란치스코)	1	박월순(마리아)	5-12	송승환(바실리오)	6
이장선(요한)	6	차화선(스텔라)	3-4	장희주(아가다)	6
양재연(젼마)	5	최효찬(프란치스코)	6	한승순(안젤라)	7
서원미(엘리사벳)	7	이용범(프란치스코)	7-12	백현국(사도요한)	7
유재영(스테파노)	3-6	문선옥(제노비아)	6	김춘자(요안나)	6
김창갑(프란치스코)	7	김민희(요안나 F.)	7	김영자(프란치스카)	7
전정부(아우구스티노)	7	손혜정(소화테레사)	3	손미정(수산나)	7
지영갑(안드레아)	7	강옥경(아셀라)	7	조양규(미카엘)	7
조연(마르타)	1-12	서성혜(발렌티나)	6		
교구사업모금(2021년 배정액 2,790만원중 700만원 봉헌)					
이세원(다두)	6	이삼순(올리아)	7	김선미(베로니카)	7
박준규(아우구스티노)	6	윤주국(알로이시오)	6	지영갑(안드레아)	7
조연(마르타)	완납	양재연(젼마)	5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농협 843-01-076467 / 예금주 : 진영성당 (교무금 책정자 성명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주일 미사 참례자		324명		
	교무금		5,708,000원		
	주일헌금		1,946,000원		
	교황주일 2차헌금		631,000원		
	교구사업모금		301,000원		
		성소후원금		167,000원	

섭리

만물을 ‘보존’하며 ‘다스림’을 뜻한다. 보존은 그 존재를 지켜 유지되도록 돌본다는 뜻이다. 보존은 ‘창조의 계속’이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에 대하여 “창조주의 덕능은 모든 피조물이 재속하는 원인이니, 만일 그 덕능이 피조물을 다스리시기를 그친다면 피조물들의 종류도 동시에 그치면서, 자연 전체가 허무로 돌아갈 것이다.” 하였다. “감암한 세상이 밝기 위하여는 태양 광선이 첫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필요함과 같다. 태양 광선이 그치기만 하면 동시에 세상은 암흑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언제나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요한 5,17)란 예수님의 말씀은 일한다는 뜻인데 여기에 만물의 보존도 들어가는 것이다.

침묵의 신비

어느 날 한 부인이 성 빈첸시오 신부를 찾아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더 이상 남편과 살지 못하겠어요. 그 사람의 신경질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를 넘어섰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다시 화목해질 수 있을까요?” 빈첸시오 신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우리 수도원 앞뜰에는 작은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우물 물을 좀 얻어가십시오. 그리고 남편이 집에 돌아오시면 그 물을 얼른 한 모금 입에 머금으십시오. 삼켜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착한 부인은 수도원의 물을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이슬해서야 귀가한 남편은 또 여느날 처럼 부인에게 불평과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같았으면 부인도 마구 달려 들었겠지만 그 우물물을 얼른 입 안 가득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새지 않도록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떠드는 소리가 점차 잠잠해졌습니다. 그날 밤 이들 부부는 무사히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부인은 남편이 신경질을 부릴 때마다, 그 물을 입 안 가득히 머금곤 했습니다. 그걸 여러 차례 반복하는 동안 남편의 행동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신경질도 줄어들었고, 오히려 부인에게 친절하게 해주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달라진 태도에 무척이나 기뻐하며 신부를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빈첸시오 신부는 아주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기적을 일으킨 것은 수도원 앞뜰의 우물물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침묵이죠. 당신의 침묵이 남편을 부드럽게 한 것뿐입니다.”